

5 세아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Creativity and Field Dependent-Independent Cognitive Style at Age Five

조 성 연*
Cho, Song Yon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children's creativity to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cognitive style and demographic variables at age 5. The subjects for the present study were 86 five-year-old boys and girls selected from two kindergartens in Seoul and their parents, who replied to the questionnaire about demographic variables. Children were tested in groups, with the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Figural, and individually with the 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 way ANOVA, t-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s.

Children's fluency and originality in creativit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field dependent-independent cognitive sty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eativity according to sex.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t-independent cognitive style according to sex. The score of field independent cognitive style of boy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girls. Children's creativity showed low correlations with demographic variables.

*연세대 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A. 연구목적

오늘날 사회가 점차적으로 과학화되고 복잡해짐으로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따라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및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창의성의 개념정의가 다양하고, 측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1950년대 이후 크게 부각되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Wallach 과 Kogan, Guilford, Torrance 등은 다양한 검사도구를 개발, 표준화시킴으로서 창의성 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상들을 표집함으로써 창의성과 지능, 성, 연령, 인종, 계층, 가정환경, 인지양식, 성격등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중에서도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지양식중 사려성-충동성 차원과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 왔으나, 장독립성-장의존성 차원과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통해 창의성과 성, 연령, 문제해결력, 성격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바 있으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못하였다. 창의성과 관련된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사회인구론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 및 이와 관련된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한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아동의 창의성에는 성차가 있는가?
3.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는 성차가 있는가?
4.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A. 창의성

창의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의 것과는 다른 아이디어나 형태, 관계양식 및 해결방법을 산출해내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의 하나이며, 생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이론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Gilchrist, 1972).

첫째, 지적특성론으로 창의성을 주로 지능

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지적 능력의 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둘째, 문제해결과정론으로 이는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 창의적인 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적 사고과정을 문제해결의 한 유형으로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성격적인 특성의 하나로 파악하여 주로 성취나 자아실현에 중점을 두는 성격특성론이 있다.

이상의 세가지 이론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창의적 사고의 본질과 과정이 무엇이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을 한가지 측면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B. 인지양식

인지양식이란 자극과 반응간의 중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가설적 설명개념으로서 개인이 환경을 조직하는 특징적인 방법을 의미한다(Goldstein & Blackman, 1978).

Harvey (1963)는 개인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여과하여 처리함으로써 그 자극 정보에 심리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인지양식으로 정의하였다.

Witkin, Oltman, Raskin 과 Karp(1971)는 인지양식이란 개인이 지각적이고 지적인 행동에서 나타내는 특징적이고 일관된 기능형태로, Messick (1976)은 정보를 조직하여 처리하는 일관된 유형으로, Coop 과 Sigel (1971)은 다양한 행동적 상황에서의 일관

성 있는 개인적인 기능형태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학자마다 인지양식에 관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사고의 내용보다는 상황에 독특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인지양식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학자에 따라, 혹은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Goldstein 과 Blackman, 1978).

Messick (1970)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9개 범주로 개념화 하였으며, Kagan (1973, 1976)은 세가지 유형으로, Kogan (1976)은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양식 유형중 Witkin (1954)이 제시한 장독립성—장의존성(field independence — field dependence) 차원의 인지양식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Witkin 에 의하면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인간의 지적과정에서 정보나 자극에 대한 심리적 분화(differentiation) 정도를 나타내 주는 구체적 지표이다(Goldstein & Blackman, 1978).

따라서 장독립성 인지양식이란 개인이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을 둘러싼 환경, 즉 장(field)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비교적 적게 받는 인지양식을 의미하고, 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장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인지양식을 의미한다.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Rod-and-Frame Test (FRT), Tilting-Room-Tilting-Chair Tests(TRTC), Embedded Figures Test(EFT), Body

Adjustment Test (BAT) 가 있으며, 이중 RFT 와 EFT 가 실시하기에 쉽고 도구가 간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C. 선행연구

1.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상관 관계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둘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Block 과 Block(1973)은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PEFT와 창의성에 대한 교사평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EFT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아동이 낮은 점수를 얻은 아동보다 더 유창하고, 유능하며, 주의력이 있고, 창의적이라고 평정되었다(Kogan, 1976).

Scarano(1980)는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90명을 대상으로 EFT와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도형검사와 언어검사를 사용하여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창의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독립성 인지양식 점수가 높은 아동이 도형검사의 독창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Kimble 과 Garmezy(1968)도 창의성 인지양식을 지닌 사람이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Noppe 와 Gallagher (1977)는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모두 장독립적인 인지

양식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Noppe (1985)도 112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Canonical 상관을 산출한 결과 그 둘간에는 .62의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Moore, Gleser 와 Warm(1970)도 이와 비슷하게 .44의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Arlin(1975), Bloomberg(1967), Del Gaudio (1976), Witkin(1965) 등은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 간에는 유의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Saarni (1973), Spotts 와 Mackler (1967) 등은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에는 유의있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 간에는 일관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

창의성에서의 성차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창의성에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ieldin, 1979; Alston, 1971; Comeau, 1980; Cooper, 1984; Fuqua, 1975; Guilford, 1971; Gupta, 1981; Lichtenwalner & Maxwell, 1969; Raina, 1980; Rungsinan, 1977; Scarano, 1980; Schilling, 1981; Yamamoto, 1964; 김영남, 1980; 김현주, 1983; 이은해, 조성연, 1987; 조성연, 1984).

그러나 창의성에서 성차가 보고된 연구 결

과들은 대부분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Fu, 1977; Galik, 1980; Milgram & Milgram, 1976; Raina, 1969; Wallach & Kogan, 1965; 안범희, 1977; 조규복, 1971).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장독립성 인지양식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약간 더 지속적이고 안정된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성차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Goldstein & Blackman, 1978; Kogan, 1976).

성차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결과들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 있어서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Coates(1974)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PEF T에 의한 장독립성 인지양식에 관한 9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조사해본 결과, 9개중 8개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은 장독립성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중 6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런 성차는 5세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Messick(1976), Vaught, Pittman 과 Roodin(1975), Witkin(1979)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들은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였다(Bigelow, 1971; Bowd, 1974, 1976; Busch & Simon, 1972; Coates, Lord, & Jakabovics, 1975; Crandall & Sinkeldam,

1964; Domash & Balter, 1976; Dreyer, Nebelkopf, & Dreyer, 1969; Erginel, 1972; Keogh & Tardo, 1975; Massari, 1975; Scarrano, 1980; Seitz, 1971; 조진형, 1983).

이상으로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3. 창의성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상관관계

창의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직업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연구로서 Haley(1984)는 중류층과 하류층의 학령전 아동 89명을 대상으로 Torrance의 Thinking Creatively in Action and Movement Test(TCAM)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유창성과 독창성이 5% 유의도 수준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중류층 아동이 더 창의적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Oliver(1980)도 부모의 직업과 좋은 가정환경은 창의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해서 Oliver(1980), Peirce(1983) 등은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 창의성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동의 창의성과 출생순위와의 관계에 대해 김영남(1980)은 국민학교 5학년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던 결과, 창의성 총집에서는 장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으나, 하위요인중 개방성에서는 막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모두 남녀간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출생순위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Comeau(1980), Jarial(1985), Leona(1982)는 장자가 그 이후 출생자들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Schubert, Wagner 와 Schubert (1977)는 여자는 출생순위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없으나, 남자는 장자가 가장 비창의적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창의성과 출생순위는 일치된 결과는 없으나 대체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계층이 중류층에 속하는 서울시의 2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이중 5세 0개월에서 5세 11개월까지의 아동 104명과 그들의 부모 104명의 총 208명으로 표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된 검사나 질문지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과가 누락된 경우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대상수는 총 172명이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표집수와 평균 연령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아동들의 평균연령은 검사

실시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표집수와 평균연령

	표 집 수	평균연령
남	41	5:7*
여	45	5:8
전 체	86	5:8

* 5:7 은 5세 7개월을 뜻함.

B.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 유아용 숨은 도형 찾기 검사, 부모용 질문지의 3가지 종류이다.

이 검사들에 대해 각각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 (TTCT)

TTCT는 Torrance에 의해 주로 발산적이며, 독창적인 사고력 및 상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창의성 검사이다(Torrance, 1966).

이 검사는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언어검사와 도형검사의 2가지 유형이 있고, 개개 검사마다 2개의 동형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연(1984)의 연구에서 처음 번역되어 실시된 바 있는 도형검사 A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TCT 도형검사는 그림구성, 그림완성, 직

선의 3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검사마다 10분씩의 시간 제한이 있고, 집단이나 개별로 실시될 수 있다.

TTCT 도형검사의 측정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개방성, 창의적 강점의 6 가지이나,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강점을 제외한 5가지 요인으로 채점되었다. 창의성 측정 요인중 창의적 강점은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해본 결과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 ($r = .72 \sim .88$)으로 산출되었기에 본 연구의 채점시에 제외되었다.

TTCT 도형검사의 신뢰도는 조성연(1984), 이은해와 조성연(1987)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2. 유아용 숨은도형 찾기 검사 (PEFT)

5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진형(1983)의 연구에서 번역되어 사용된 바 있는 Coates(1972)의 유아용 숨은도형 찾기 검사(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 : PEFT)가 사용되었다.

PEFT는 4세에서 6세까지의 연령범위에 사용될 수 있는 개별 검사로, 각 검사도형마다 30초의 시간제한이 있는 검사도형이다.

PEFT는 준비과제, 도형제시카드, 3장의 연습도형과 24장의 본 검사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PEFT의 신뢰도는 조진형(1983)과 이은해와 조진형(1984)의 연구에서 반분 신뢰도가 .80, .81로 산출되어 보고된 바 있다.

3. 사회인구론적 변인에 대한 질문지

아동의 사회인구론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수준, 부모직업, 월수입, 월생활비, 문화 시설불, 아동의 출생순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부모용 질문지를 제작하여 이를 부모에게 나눠준 후 회수하였다.

C. 절차

1. 검사실시

본 검사는 1987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훈련받은 4명의 대학원생에 의해 각 검사요강에 제시된 바에 따라 창의성 검사, 인지양식 검사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창의성 검사는 아동 약 10명씩 집단으로 실시되었으며, 인지양식 검사는 개별로 실시되었다. 또한 사회인구론적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부모에게 전달하여 다음날 회수되었다.

2. 채 점

1)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도형검사(TTCT-F)

TTCT의 도형검사는 Ball과 Torrance가 1984년에 고안한 간편 채점방식(Streamlined Scoring System)에 따라서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개방성의 5개 하위요인별로 채점되었다. 이러한 점수들에 대한 국내 규준이 아직 제시되지 못한 바, 원래의 채점기준에 충실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수들을 검사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규준에 따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2) 유아용 숨은도형 찾기 검사(PEFT)

PEFT는 제한된 30 초 이내에 단순 형태로 제시된 세모를 정확하게 찾아낸 경우 한해서 1점을 주고, 시간이 지났거나, 포기했거나 틀린 반응에는 모두 0점을 주어 채점되었다. 따라서 검사도형이 24 장이므로 PEFT 점수는 0 점에서 24 점까지 산출될 수 있다.

3) 사회인구론적 변인

(1)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은 김영모(1969), 장영애(1986)의 연구를 참고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표 2>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되었다.

<표 2> 부모교육수준 평가기준

학 력	평 점
대학원 졸업	7
대학교 졸업	6
대학교 중퇴 및 전문대 졸업	5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4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2
무 학	1

(2) 부모직업

부모의 직업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66) 김영모(1969), 조진형(1983)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을 참고하여 <표 3>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점수화하여 평가되었다.

(3) 가정경제 수준

가정경제 수준은 장영애(1986)의 연구를

<표 3> 부모직업 평가기준

직 업	평 점
전 문 직	7
관 리 직	6
사 무 직	5
판 매 직	4
서 어 비 스 직	3
숙 련 직	2
무직 및 가정주부	1

참고로 월수입, 월생활비, 9 가지 문화시설 물의 세가지 점수를 합하여 산출되었다.

이중 9 가지 문화시설물은 각각 1 점씩의 점수가 주어졌으며, 월수입과 월생활비는 <표 4>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점수화되었다.

<표 4> 가정경제수준

월 수 입 (월생활비)	평 점
101 만원 이상	7
71 ~ 100 만원	6
51 ~ 70 만원	5
31 ~ 50 만원	4
21 ~ 30 만원	3
11 ~ 20 만원	2
0 ~ 10 만원	1

(4) 아동의 출생순위

아동의 출생순위는 대상 아동의 50%가 장자, 37.2%가 차자, 그 이하가 12.8%로서 빈도상 차자 이하가 소수였기 때문에 장

자와 차자 이하의 2집단으로 분류하여 장자에게 1점, 차자 이하에게 2점을 주어 처리하였다.

3. 결과 처리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TTCT에 의한 창의성 점수와 PEFT에 의한 장독립성 인지양식 점수의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산출되었다. 또한 이 두 변인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양분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절차는 SPSS 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4. 제한점

첫째, 연구 대상이 서울시 소재의 2개 사

립 유치원으로 국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가 비록 국내에서 신뢰도가 조사된 바는 있으나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

Ⅳ. 연구결과

A.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변인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상관계수

창의성 하위요인	성		전 체 (N = 86)
	남 (n = 41)	여 (n = 45)	
유 창 성	.3491*	.2016	.2861**
독 창 성	.3112*	.1843	.2563**
제목의 추상성	-.1195	.0804	.0197
정 교 성	.1821	-.0023	.0125
개 방 성	.0164	.1478	.0423
창의성 총점	.1280	.1502	.1471

** p < .01

* P < .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창의성 총점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창의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1%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는 창의성의 하위요인중 제목의 추상성에서, 여아는 정교성에서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남아는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5% 유의도 수준으로 의의있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B.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

<표 6> 아동의 창의성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의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 86)

창의성 하위요인	성		남 (n = 41)		여 (n = 45)		전 체 (N = 86)	
	통계치							
			M	SD	M	SD	M	SD
유 창 성		109.976	15.957	107.422	15.872	108.640	15.871	
독 창 성		107.805	19.836	105.622	18.594	106.663	19.114	
제목의 추상성		67.073	49.762	50.444	50.702	58.372	50.663	
정 교 성		100.683	15.127	109.800	23.011	105.453	20.069	
개 방 성		82.122	24.741	84.822	15.508	83.058	20.396	
창의성 총점		466.659	69.998	458.111	86.166	462.186	78.534	

<표 6>에서 보면 창의성 총점 및 하위요인중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에서의 평균은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것이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창의성 총점에서는 남녀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정교성에서는 5% 유의도 수준에서 의의있는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정교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1. 아동의 창의성에서의 성차

아동의 창의성이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창의성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7> 창의성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의 F치 (N = 86)

	F 치
유 창 성	.522
독 창 성	.277
제목의 추상성	2.348
정 교 성	4.616*
개 방 성	.704
창의성 총점	.252

* p < .05

2.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t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 (N = 86)

	N	M	SD	t
남	41	17.4978	4.422	2.19*
여	45	15.5111	3.958	

* $p < .05$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에 따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는 5% 유도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아의 장독립성 인지양식 점수가 여아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C.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

<표 9>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교육 수준과의 상관계수 (N = 86)

창의성 하위요인	교육수준 아동의성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남	여	전 체	남	여	전 체
유 창 성		.0062	-.1465	-.0766	-.2030	-.1007	-.1417
독 창 성		.1538	-.1491	-.0323	-.1428	-.2154	-.1822*
제목의 추상성		-.1008	-.1652	-.1067	.0217	.0859	.0572
정 교 성		.2013	.0301	.0296	-.1091	.0188	-.0188
개 방 성		.1685	.0596	.0761	.0939	-.0936	.0054
창의성 총점		.0764	-.1376*	-.0648	-.0617	-.0263	-.0395

* $p < .05$

사회인구론적 변인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아버지는 79.5%, 어머니는 44.7%이고,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아버지는 97.6%, 어머니는 96.5%였다.

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아버지는 전체의 81.3%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전체의 73.1%가 무직이나 가정주부였다.

가정경제 수준에 따르면, 월수입과 월생활비는 전체의 53.5%가 30만원에서 70만원이었으며, 문화시설물은 74.4%가 5개에서 8개를 지니고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장자가 50%이고, 차자 이하가 50%였다.

먼저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교육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교육수준별, 아동의 성별 창의성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면 아동의 창의성 총점과 부모의 교육수준과는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는 제목의 추상성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는 독창성에서 가장 커다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5% 유의도 수준에서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아동별로 살펴보면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 제목의 추상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총점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제목의 추상성과 개방성에서만 낮은 정적 상관을 나

타내었다. 여아의 경우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 정교성과 개방성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제목의 추상성과 정교성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교육수준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부모 직업에 따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 직업과의 상관계수 (N = 86)

창의성 하위요인	직업 아동의성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유창성		.0234	-.2179	-.1132	-.1725	-.0523	-.1133
독창성		.0462	-.3182*	-.1562	-.1594	-.0927	-.1280
제목의 추상성		.0741	-.1162	-.0324	-.0080	.2521*	.1189
정교성		.1059	.1356	.1164	-.0461	-.1521	-.0931
개방성		-.1172	-.0644	.0893	-.1025	-.3520**	-.1930
창의성 총점		.0526	-.1526	-.0752	-.1363	.0148	-.0513

** P < .01

* P < .05

〈표 10〉에서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 직업과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특히 어머니의 직업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남아는 창의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직업과의 관계에서는 남아의 경

우 개방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여아의 경우 정교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창의성과 가정경제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성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아동의 창의성과 가정경제 수준과의 상관계수 (N = 86)

	남	여	전체
유창성	.0877	-.1101	-.0374
독창성	.0043	-.0737	-.0449
제목의 추상성	.1088	.0966	.0871
정교성	.0586	-.0222	.0174
개방성	.1073	-.0264	.0440
창의성 총점	.1491	.0100	.0536

〈표 11〉에서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가정경제 수준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는 낮으나 창의성의 총점 및 모든 하위 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여아의 경우는 창의성 총점과 하위요인중 제목의 추상성에서 만 정적 상관을 산출하였다. 또한 창의성과 가정경제 수준과의 관계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아동의 창의성과 출생순위와의 양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에서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출생순위간에는 독창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매우 낮은 정적 상관을 산출하였다.

이를 남여별로 살펴보면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남아의 경우는 독창성만이 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산출하고 나머지 모든 하위요인과 총점에서는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모든 요인에서 남

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산출하였다.

〈표 12〉 아동의 창의성과 출생순위와의 상관계수 (N = 86)

	남	여	전체
유창성	-.0641	.1509	.0425
독창성	.2646*	.1467	-.0590
제목의 추상성	-.0773	.2125	.0632
정교성	-.0668	.1926	.1078
개방성	-.0044	.0148	.0099
창의성 총점	-.1605	.2387	.0651

* $p < .05$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장독립성 인지양식 및 부모교육 수준, 부모직업, 가정경제 수준과 출생순위의 사회인구론적 변인들간의 관계와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만 5세아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창의성 총점과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계수($r = .15$)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Saarni(1973), Spott과 Mackler(1967) 등이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성의 하위요인 중 유창성과 독창성에서는 유의있는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서 Block과 Block(1973), Kimble과

Garmezy (1968), Scarano (1980) 등이 제시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서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지니는 아동이 더 유창하고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이 제시된 자극을 지각할 때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사고방식이고, 유창성과 독창성도 역시 아동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도형을 사용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특히 창의성을 성격 특성의 일면으로 간주할 경우 의의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창의성의 성격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성격적 측면에서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 (Alieldin, 1979; Alston, 1971; Cooper, 1984; Guilford, 1971; Raina, 1980; Yamamoto, 1964; 김영남, 1980; 김현수, 1983; 이은해, 조성연, 1987; 조성연, 1984)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창의성의 총점 및 정교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점수에서 의의있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창의성에는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는 5% 유의도 수준에서 의의있는 성차가 산출되었다. 이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Coates (1974)의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인 반면, Messick (1976), Vaught, Pittman 과 Radin (1975), Witkin (1979) 등의 연구와는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가 나타나는 한가지 이유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는 조진형 (1983)의 연구결과 아동의 장독립성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남아에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에게 더 많은 관계변량을 산출하였던 것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는 아동과 더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남아에 대한 장독립성 기여 현상이 아버지의 여아에 대한 기여현상보다 더 현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독립성 인지양식에서의 성차와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 및 아동의 성격 등 관련변인과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창의성과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교육 수준, 부모 직업, 가정경제 수준 및 출생순위와 창의성 간에는 의의있는 상관계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교육 수준과는 부적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부모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창의성도 높아진다는 Oliver (1980), Peirce (1983) 등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면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들이 고학력일수록 아동들을 정해진 양육 방식 및 교육 방식의 틀에 맞추고자 함으로서, 아동의 독창적이고 융통성있는 풍부한 사고방식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창

의성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양상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서 여아에 대해 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양육방식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어 아동의 성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에서의 차이에 대한 일면도 시사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 더 큰 표집과 더 확대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종단적, 횡단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직업과의 관계에서는 Oliver (1980)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비전문직일수록, 어머니는 직업이 없을수록 아동이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으로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아보다 여아에게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다르게 남이는 매우 낮으나 대체로 정적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의 원인규명에 대하여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여 모두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 때 창의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어머니의 취업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아동과 접촉할 시간이 줄어들 경우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경제수준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

동이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류층과 하류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중류층 아동이 더 창의적이었던 Haley (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 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현상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있어서 더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창의성과 출생순위와의 관계에서는 매우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독창성에서만 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있는 관계를 나타냈을뿐 다른 모든 요인에서는 장자와 차자 이하의 아동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 보았을 때는 남녀간에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남아의 경우는 독창성에서만 차자이하가 장자보다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요인과 총점에서는 장자가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이는 Comeau (1980), Jarial (1985), Leona (198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는 창의성 총점 및 모든 하위요인 점수에서 차자 이하가 장자보다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생순위와 관련된 창의성에서의 차이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관련된 성격특성 및 형제관계 등의 관련변인과 연결시켜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아동의 창의성과 장독립성 인지양식 및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나타내는 아동일수록 더 유창하고 독창적이다.

2. 아동의 창의성에는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

3.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나타낸다.

4. 부모교육 수준, 부모직업, 가정경제수준, 출생순위는 아동의 창의성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1966),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서울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김영남. (1980), 부모-자녀 관계 및 출생순위와 창의성간의 상관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 28-37.
- 김영모. (1969),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 박사 회갑 기념 논총. 서울 : 을유문화사.
- 이은해, 조성연. (1987),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및 성격특성간의 관계. 연세논총, 23, 333-350.
- 이창우, 최경숙. (1981), 한국 아동의 인지양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제요인에 대한 중다 상관 분석적 연구. 성대 논문집, 30, 139-161.
- 장영애. (1986), 아동의 가정 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혁표. (1981), 인지 양식과 그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성연. (1984), 창의성 검사의 타당화를 위한 일연구 : Torrance 창의적 사고력 검사(TTCT)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진형. (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3-5세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나타낸다.
- 최경숙. (1985), 아동 심리학. 서울 : 민음사.
- Ball, O.E. & Torrance, E.P. (1984). Streamlined scoring workbook: Figural A.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Bates, D.L. (1981). A correlational study of figure-ground discrimination,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spatial ability, and creativity in learning disabled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2(5), 2067-2068.
- Coates, S.W. (1974). Sex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between the ages of 3 and 6. Perceptual and Motor Skills, 39, 1307-1310.
- Comeau, H.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birth order, an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4(1), 71.
- Coop, A.H. & Sigel, I.E. (1971). Cognitive style: Implication for learning and instru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2, 152-161.
- Galik, Y.L.C. (1980). Relationships between verbal fluency factors of creativity, personality variables, social influence, and sex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2), 671.
- Gilchrist, M. (1972). The psychology of cre-

- ativity.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Goldstein, K.M. & Blackman, S. (1978). Cognitive style: Five approaches and relevant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ley, G.L. (1985). Creative response styl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roblem-solving training.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8(1), 25-40.
- Harvey, O.J. (1963). Cognitive determinants of role playing (Technical Report No.3). Boulder, CO: University of Colorado.
- Jarial, G.S. (1985). Creativity and birth order.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9(2), 139.
- Kogan, N. (1976). Cognitive styles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ona, M.H. (1982). An investigation of the interrelationships of birth order and creativ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3), 732-733.
- Messick, S. (1970). The criterion problem in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 Assessing possible, not just intended, outcomes. In M. C. Wittrock & D. Wiley (Eds.),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s: Issues and problem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_____. (1976). Personality consistencies in cognition and creativity. In S. Messick & Associates, Individuality is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oppe, L.D. (1985). The relationship of formal thought and cognitive styles to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9(2), 88-96.
- Oliver, A.D. (1985). The influence of the milieu on creativ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4), 1497.
- Pagans, A.L. (1979). Learning an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3(2), 127-138.
- Peirce, C.L. (1983). The relationship of television viewing, reading and the home environment to children's creativity, creative writing abil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7), 2146-2147.
- Scarano, F.M. (1980). Relationships between field independence, flexibility and creativity in average and high ability sixth and seventh grader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4), 1500-1501.
- Schubert, D.S.P., Wagner, M.E., & Schubert, H.J.P. (1977). Interest in creativity training by birth order and sex.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1(2), 144-145.
- Shouksmith, G. (1970). Intelligence, creativity and cognitive style. New York: Wiley-Interscience.
- Torrance, E.P. (1966).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Directions manual and guide (Figural test booklet A).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Vaught, G.H., Pittman, M.D., & Roodin, P.A. (1975). Developmental curves for the portable rod-and-frame test. Bulletins of the Psychonomic Society, 5, 151-152.

Witkin, H.A. (1979). Socialization, culture and ecology in the development of group and sex differentiation in cognitive style. Human Development, 22, 358-372.

Witkin, H.A., Oltman, P.K., Raskin, E., &

Karp, S.A. (1971). A manual for the Embedded Figures Test, Children's Embedded Figures Test, Group Embedded Figures Test.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